

# 코로나19로 사무공간과 업무를 혁신하는 구글

글. 최홍규 EBS 정책기획부 연구위원 / 미디어학 박사



## 코로나19와 함께 달라진다는 구글

구글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혁신을 선언하겠다고 나섰다. 구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기존에 회사에서 소요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기존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구글(Google)과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Alphabet)의 최고경영자(이하 CEO)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가 사내 뉴스 게시판에 밝힌 ‘업무에 대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A hybrid approach to work)’의 골자다.

순다르 피차이는 지난 2021년 5월 5일 사내 게시판에서 구글 직원의 업무일은 일주일에 3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5일 중 3일을 회사라는 공간에 출근하면 되며, 이때 동료직원들과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을 위주로 처리하면 된다. 그럼 나머지 2일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혹은 일이 잘되는 곳에서 일하면 된단다. 참으로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구글은 코로나19를 통해, 확실히 회사라는 공간과 업무 시간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직원이 1년에 최대 4주 정도인 1개월은 본사가 아닌 자기만의 장소에서 일해도 된다고 한다. 이곳이 휴양지이어도 상관없다. 일을 처리할 수 있으면 되고 성과가 나면 된다. 여름휴가를 어디론가 길게 떠난다면 그곳에서 4주를 일하면서 휴양도 하라는 것이다. ‘아! 기존에는 왜 이런 생각을 못 했나’ 할 정도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회사라는 존재는 회사원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일을 처리하는 곳이었다. 회사에 출근해야 일이 처리된다고 인식되었으며, 상사의 눈에 직원의 일하는 모습이 보여야 일의 완성 과정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회사라는 공간은 직원의 업무가 모니터링되는 공간이자, 업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공간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구글이 바뀌겠다고 한다. 재택근무와 원격회의, 비대면의 업무 일상이 지속하면서 구글은 새로운 혁신의 계획을 말했다. 골자는 업무 시간의 개념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 업무공간을 다시 세팅하는 것이다.



캠프파이어(Campfire) 구성을 활용한 구글의 원격회의의 공간<sup>1)</sup>



풍선벽을 통한 개인 업무 공간<sup>2)</sup>

## 업무공간은 일이 완성되도록 하는 공간이다

지난 5월 3일 자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서도 기사로 다뤄진 바 있는, 구글의 사무실 재편 계획은 여러 가지 혁신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

원격회의가 일상화되면서 캠프파이어(Campfire)를 하듯 원형으로 둘러앉는 회의공간은 특이하다. 이 공간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회의하는 사람들은 서로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할 수 있다. 직원들이 최대한 오프라인에서 회의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고안된 디자인이다.

‘팀포드(Team Pod)’라고 불리는 공간은 그야말로 팀원들이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 팀포드 공간은 이제 9월이 되면 언제든지 변형하기 쉽도록 디자인이 바뀐다. 원하는 모양으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할 수 있고, 직원 개인의 공간과 회의공간이 구체화되도록 구조를 달리할 수 있다. 만일 팀원들이 모여서 프로젝트 화면을 띄워놓고 회의하다가도 직원이 혼자 집중해 일하고 싶은 시점이 되면 자기 자리에 가서 앉으면 된다. 한 직원이 책상에 앉는 순간 직원과 직원 사

이에 ‘풍선벽(balloon wall)’이 만들어진다. 바퀴 달린 로봇 형태의 풍선벽이 좌우로 벌어지며 펼쳐지고 이로써 개인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직원은 개인화된 공간에서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혹시 모를 전염병도 예방할 수 있다.



공동 작업과 집중된 업무처리를 위한 팀포드(Team Pod) 공간

1) <https://blog.google/inside-google/life-at-google/hybrid-approach-work/>

2) <https://9to5google.com/2021/04/30/google-post-pandemic-offices>





직원이 책상을 이용하는 순간 높이가 조정되는 ‘핫데스크(hot desk)’<sup>3)</sup>

책상이 알아서 직원의 신체에 맞게 세팅되는 시스템도 있다. 일명 ‘핫데스크(hot desk)’라 불리는 이 책상에 직원이 개인용 노트북이나 태블릿PC를 연결하면 책상은 사전에 입력된 데이터에 따라 직원이 업무하기 편안한 높이로 세팅된다. 직원이 다시 개인용 사무기기를 분리하면 책상은 다시 원래의 높이로 돌아간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예 회사를 캠핑장 같이 만든 공간도 있다. ‘캠프 찰스턴(Camp Charleston)’이라는 공간은 주차장과 잔디로 된 구역을 캠핑장 같이 바꾼 공

간인데, 직원들은 이러한 캠핑장 같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 무선 인터넷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고 화상회의를 위한 공간도 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캠핑은 느낌으로 회사에 출근하고 거기서 즐겁게 업무를 할 수 있다니. 그야말로 획기적인 변화다. 업무는 일이 잘 완성되면 되는 공간이지, 직원을 묶어두고 감시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구글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 때문인지 구글은 런던, 로스앤젤레스, 뮌헨, 뉴욕, 호주 시드니 등 대도시에서 캠프 찰스턴과 같은 야외 업무공간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한다.



캠핑장처럼 꾸민 야외 업무공간, 캠프 찰스턴(Camp Charleston)

3) 링크 내 동영상 캡처 <https://www.nytimes.com/2021/04/30/technology/google-back-to-office-workers.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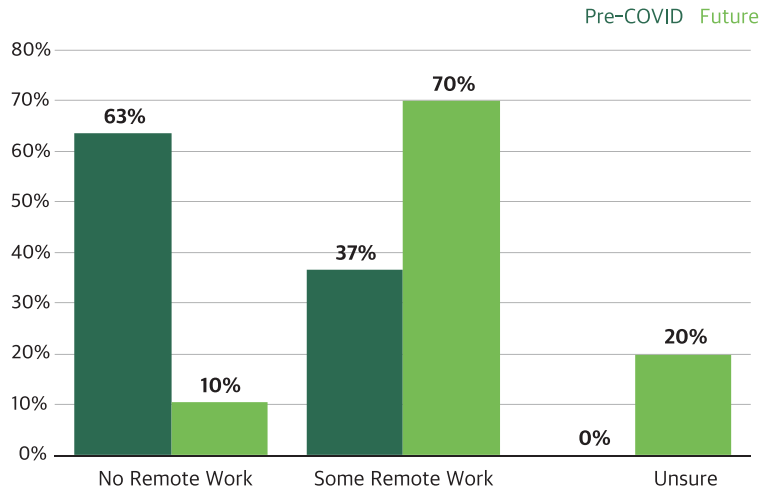
## 코로나19는 구글에 또 다른 기회

세계 최대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회사에 속하는 미국의 CBRE(Coldwell Banker Richard Ellis)는 각 산업에서 상위권 회사의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20년 6월의 조사에서 글로벌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임원들 126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사무실의 미래(The Future of the Office)>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설문 결과 중에 흥미로운 결과가 발견된다. 코로나19 이후에 원격근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임원들은 대개 원격근무가 보편화될 것이라 보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회의가 치러지거나, 이메일이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일이 일상화될 것이라 예상한 결과다.

이러한 조사 결과처럼, 구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기업보다도 코로나19를 하나의 변곡점으로 보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업무를 위한 시간과 공간, 이를 활용하는 인력의 개념에 대해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구글은 코로나19 이후에 원격근무를 보편화할 것이므로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업무 시간은 주 3일로 줄일 수 있고, 1년에 1개월은 직원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는 언제든지 사무실 밖 직원들과 편리한 원격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그뿐인가? 자기 자리에 앉으면 혼자만의 개인화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직원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조절되는 책상에서 근무할 수 있단다.

구글은 세계 최대 포털 사업자로 시작한 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웹과 모바일 산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구글의 혁신은 ICT 산업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가 선언한 업무방식의 변화나, 사무공간의 재구성과 같은 내용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이다.



원격근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sup>4)</sup>

더욱 분명한 것은 구글이 코로나19를 대전환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사무실이라는 공간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업무의 완성을 위해 꼭 직원들이 모이는 공간이 사무실일 필요는 없다는 것.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감시당하며 일하는 것이 기업의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꼭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업무를 위한 시간이나 공간은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구글은 코로나19라는 위기에 이러한 것을 배웠고 또 바뀌려 노력한다. 구글이 사무실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 단순한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만이 아닌 이유가 있는 것이다. 

4) <https://www.cbre.com/-/media/files/future%20of%20work/future-of-the-office-v2.pdf>